AI 거점도시 외치지만… 전남광주 기업 지원 '쥐꼬리'

스마트서비스 사업 전국 175곳 중 8개사‥4.6%에 그쳐
데이터센터·집적단지 구축 속 지역기업 현장 지원 미흡

인공지능(AI) 거점도시를 내세운 전남광주가 정작 지역기업의 AI 전환에서는 수도권에 크게 뒤처지고 있다.

정부의 AI·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에서 전남광주 기업 선정 비중이 전국의 5%에도 미치지 못하면서다.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에 비해 지역기업의 실질적인 전환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김영신)에 따르면 '2026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사업' 지원 대상으로 전국 175개 기업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광주는 7개사(신규 6개사·고도화 1개사), 전남은 1개사(신규)로 전남광주 전체 선정기업은 8개사(신규 7개사·고도화 1개사)에 그쳤다. 전국 선정기업의 4.6% 수준이다.

반면 서울은 65개사(신규 52개사·고도화 13개사), 경기는 41개사(신규 35개사·고도화 6개사)가 선정됐다.

서울과 경기에서만 106개사가 선정돼 전체의 60.6%를 차지했다. 인천 7개사(신규 6개사·고도화 1개사)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선정기업은 113개사로 전체의 64.6%에 달한다.

정부의 AI·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선정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수도권에 몰린 반면 전남광주는 20곳 가운데 1곳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이번 사업은 서비스 중소기업이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규 솔루션 개발 기업 150곳에는 기업당 5000만원, 기존 서비스 고도화 기업 25곳에는 최대 1억원이 지원된다.

올해 공모에는 전국 545개 기업이 신청해 약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AI를 실제 사업에 접목하려는 중소기업의 수요가 상당하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전남광주에서는 지원 대상 기업이 8곳에 그치면서 지역기업의 AI 전환 수요를 제대로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는지 정책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남광주는 AI를 지역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상당한 정책적 역량을 투입해왔다.

광주는 2020년부터 AI 집적단지 1단계 사업을 추진하며 비수도권 AI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섰고, AI 데이터센터 등을 기반으로 AI 실증도시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과 지역 중소기업이 AI를 실제 업무와 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AI 전환 역시 더 이상 IT기업만의 과제가 아니다. 기존 산업에 AI를 접목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기업이 늘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AI 활용 여부가 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전남광주의 AI 산업정책은 그동안 데이터센터와 집적단지, 대규모 투자 유치 등 '산업 인프라' 구축에 상대적으로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작 지역에 이미 자리 잡은 중소기업이 AI 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현장형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남에서도 AI 관련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원 규모와 대상에는 한계가 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올해 가상융합 분야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소프트웨어와 GPU 연산 비용 등을 지원했지만 기업당 최대 지원액은 100만원 수준이다.

AI 전환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 데이터 구축, 컨설팅 비용 등을 고려하면 지역기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에는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스마트서비스 사업 선정기업 가운데 업력 7년을 초과한 성장단계 기업이 92개사로 전체의 53%를 차지한 점도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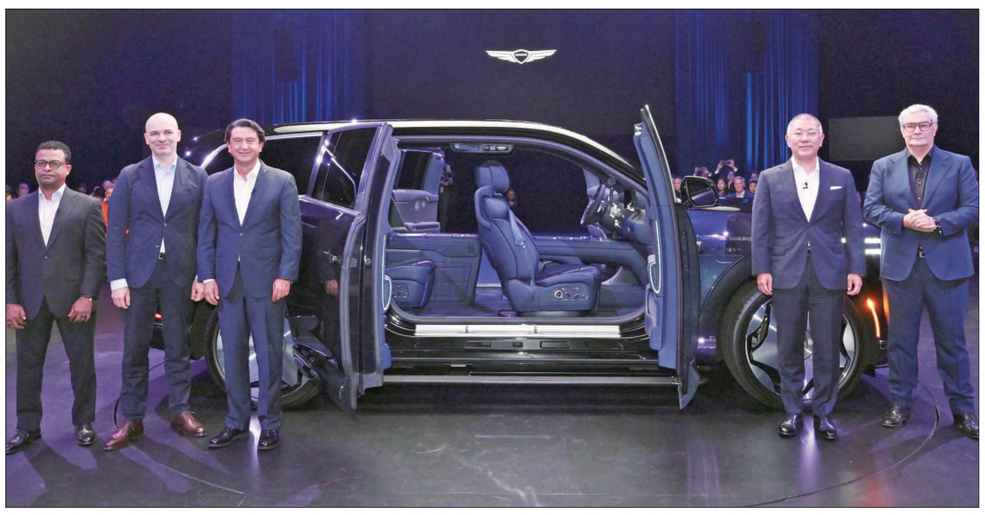
AI 전환이 단순히 창업 초기 기술기업의 과제가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존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전략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다.

황영호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은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이 AI를 더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며 "AI·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중소기업에 혁신이 이뤄지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광주의 AI 산업정책 역시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상용 경제학박사는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서고 관련 사업이 늘어나는 것과 개별 중소기업이 실제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며 "인력과 비용 부담 때문에 AI 도입을 엄두 내지 못하는 지역기업이 많은 만큼 기업 현장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GV90 월드 프리미어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제네시스북미법인 COO 테드로스 맹기스테, 현대차그룹 R&D본부장 만프레드 하러 사장, 현대차 대표이사 호세 무뇨스 사장,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현대차그룹 CCO 겸 CDO 루크 동커볼케 사장.

제네시스, 'GV90 네오룬·GV90' 최초 공개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가 브랜드 첫 초대형 플래그십 전동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V90 네오룬'과 'GV90'을 공개했다.

제네시스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팰리스 오브 파인아트에서 'GV90 월드 프리미어'를 개최하고 GV90 네오룬과 GV90을 선보였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GV90는 제네시스가 생각하는 미래 럭셔리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모델로 기술과 디자인, 그리고 고객 경험 전반에 걸친 혁신을 통해 고객에게 더 큰 자유를 제공하고자 하는 철학을 담아냈다"며 "혁신의 가치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인간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미래 럭셔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정한 럭셔리는 사람을 더 자유롭게 하는 데서 시작되며, 아름다움은 그 자유를 완성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와 품격 있는 경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GV90는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전용 플랫폼인 'eMP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네오룬 아치 게이트를 적용한 GV90 네오룬과 스윙 도어를 적용한 GV90 2종으로 운영된다.

세계 최초의 독립 개폐형 히든 B필러 코치 도어인 네오룬 아치 게이트는 차체의 B필러 없이 프론트 도어와 리어 도어가 서로 마주 보며 열리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새로 개발된 듀얼 모션 힌지는 리어 도어를 바깥쪽으로 슬라이딩시킨 후 부드럽게 회전시켜 프론트 도어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여닫을 수 있게 해준다.

제네시스는 차체 측면부를 지탱하던 B필러 대신 도어 내부에 초고강도 듀얼 스틸 빔을 적용해 강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탑승 공간을 둘러싼 차체에 기존 대비 1.5배 두꺼운 골격을 적용하고, 초고강도 스틸 튜브와 고강성 구조용 폼을 곳곳에 적용, B필러가 있는 차량과 동등한 수준의 충돌 안전 성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GV90에는 세계 최초로 적용된 루프 에어백과 두 단계로 펼쳐지는 듀얼 뎁스 에어백을 비롯해 총 12개의 에어백이 탑재됐다. 실내 모니터링 시스템과 강성을 한층 높인 차체 구조, 배터리 셀 간 열전이를 막는 안전 기술(TRP)도 적용됐다.

GV90 네오룬의 경우 현대차그룹 최초로 앞좌석에 전동식 스위블링 시트가 적용, 정차 중 도어 트림에 위치한 버튼을 누르면 앞좌석 시트가 180도 회전해 탑승객이 서로 마주 보며 휴식이나 업무를 할 수 있다.

제네시스는 GV90에 현대차그룹 전기차 중 가장 큰 용량인 123.5kWh(킬로와트시)의 고전압 배터리를 탑재했다.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는 GV90(7인승) 기준 500km(자체 측정 기준)이며, 350kW(킬로와트)급 급속 충전 시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22분 만에 충전이 가능하다.

전후륜 모터 합산 최고 출력은 490kW, 최대 토크는 800Nm다.

GV90는 현대차그룹 최초로 듀얼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e-LSD)와 시동 버튼을 없앤 신규 전원 체계가 적용됐다.

외관은 한국의 미학을 대표하는 달항아리로부터 영감을 받아 완성됐다.

제네시스는 이날 스페셜 에디션인 'GV90 네오룬 퍼스트 에디션'도 함께 공개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광주상의, 수출기업 통상애로 해소 팔걷어

관세·물류 등 9개 기관 현장 맞춤형 상담 제공

광주상공회의소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상담 지원에 나섰다.

광주상의가 운영하는 광주FTA통상진흥센터는 2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지역 수출기업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FTA 통상데스크'를 개최했다.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광주FTA통상진흥센터와 전남FTA통상진흥센터, 한국생산성본부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수출기업의 통상환경 대응 부담을 줄이고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황영래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사무관은 덤핑과 지식재산권 침해로 피해를 본 기업의 대응 방안을 안내했다.

행사장에서는 9개 수출지원 유관기관이 상담부스를 운영했다. 각 기관은 기업 관계자들과 1대 1 상담을 진행하며 통상과 관세, 물류 등 수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